

“외로운 홀몸어르신, 추석에도 함께 합니다”

박은정 광주 북부녹색어머니회장

결식우려 취약계층에 도시락 전달 등 나눔활동 동참
‘전 부치기’ 행사 등 지역 독거노인 돌봄 활동도 전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든 시기를 홀로가 아닌 나눔과 연대를 통해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이른 아침마다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활동 등을 전개하며,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전달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 광주 북부녹색어머니회(회장 박은정)가 그 주인공이다.

박 회장은 23일 “북부녹색어머니회는 초·중·

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북부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우리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치자’는 의견이 모여 독거노인 빨래봉사, 김장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부녹색어머니회는 북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 중인 ‘잠! 좋은 사람의 밥차’ 봉사활동에 참여해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 취약계층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식료품 키트 등을 전달해오고 있다.

최근엔 지역 결식아동 등 300가구에 정성이 담긴 식사를 전달했으며,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을 위해 특식을



배송하는 등 위로를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면대면 접촉이 잦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감염 우려에 가족들의 반발이 있었다”며 “하지만 ‘누군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코로나19

여파로 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방지를 위한 돌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보면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시거나 두 손 잡고 반기며 좋아해하시는 얼굴이 떠오른다”며 “한 어르신의 경우 자녀 없이 홀로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너무 외로웠는지 ‘같이 밥 먹고 가달라, 잠시 말동무 좀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소회했다.

그는 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다 쓰러져가는 가옥에 거주하시는 할머니의 모습도 생각난다”며 “아드님이 차상위 계층에 속하다보니 할머니의 경우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인데다 봉사를 갔을 때 장마철이라 식사도 못하고, 집 안에 쥐들도 보여 속상한 마음이 컸다”고 회상했다.

박 회장은 “봉사자들의 마음이 식지 않은 한 돌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추석을 앞두고 ‘전 부치기’ 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을 비롯한 차상위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광주도시철도공사, 디지털 성범죄 예방점검 캠페인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최근 광산경찰서(서장 정재운)와 합동으로 광주송정역에서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양 기관은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여자 화장실 전체 칸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각 칸마다 ‘불법카메라 간이탐지카드’를 비치했다. 불법카메라 간이탐지카드란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를 이용해 불법카메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이다.

또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직접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수시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용 탐지카드를 배부하는 등 시민 참여형 대응활동을 펼쳤다.

윤 사장은 “20개 전 역사에서 매일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목포 홍일중 학생들, 죽교동에 사랑의 위문품 전달

목포 홍일중학교 학생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15포, 라면 22박스, 김 24세트를 죽교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홍일중 학생들은 공생재활원에도 마스크 1천매, 화장지 12박스(100만원 상당), 시그니티오양 병원에도 휠체어 4대, 화장지 30박스(100만원 상당) 등을 후원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홍일중 학생들은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김장 나눔, 연탄 배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나눔 활동(위문품 전달)으로 대신하고 있다.

정승재 홍일중 교장은 “평소 학생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학교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광주매일신문, 화정 지역아동센터 NIE 순회교육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아동센터 NIE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역 아동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22일 광주 서구 화정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쉽게 따라 하는 신문 만들기’ 교재를 중심으로 이론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뉴스가 되는지와 글을 잘 쓰는 방법, 자연스럽게 호흡에 맞는 정도의 간결한 문장을 쓰는 법, 기사의 특성에 대한 이론교육이 실시됐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효광(염주초 6)·정건기(염주초 5)·정귀현(염주초 5) 학생은 기사를 잘 쓰는 방법과 신문편집디자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은 이 교육을 통해 신문 읽기에 대한 관



심을 높이고 다양한 의사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신문을 만드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 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종기자



담양군 ‘치매예방관리사업 평가’ 복지부장관상 수상

담양군이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로로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치매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해 지역사회 치매환자와 가족 중심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치매예방검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우수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22개 시·군 중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금성면 석현리와 고서면 고읍리 2개 마을을 지정해 1:1 대면 방문 돌

봄 서비스 및 치매인지 관리를 하며 106개소 치매연계기관과 연계, 치매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원터프로그래밍 검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1:1 찾아가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과 치매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순복 담양보건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담양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대 대학일자리센터, ‘성공취업 NH농협’ 탐방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대학일자리센터는 취업에 앞선 3~4학년 10명의 학생과 함께 광주광산구에 위치한 NH농협은행 광주지역본부 찾아 ‘성공 취업을 위한 NH농협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업에 필

요한 인재상 등 취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전체 학부(과)에 취업 담당 교수를 배치해 저학년부터 적성·전공을 고려한 조기 진로지도와 학년별 맞춤형 지원, 전공별 커리어로드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권범기자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협의회, 긴급재난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협의회(회장 표래식)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추석명절맞이 긴급재난지원물품 지원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가정에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내자’는 취지로 지부에서 200가정을 선정해 진행했다.

이번 지원물품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협의회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지원물품인 삼계탕은 대상자 1세트씩 200가정에 총 6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다.

표래식 협의회장은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많이 지쳐있을 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광주전남지부협의회가 힘을 모아 삼계탕을 지원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협의회는 물품지



원으로 대상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창수 지부장은 “광주전남지부 협의회에서 보호대상자와 가족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심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김명진 전 靑행정관 호남대 초빙교수임용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부수석실에서 근무한 김명진(56) 전 행정관이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활용 지원대상자로 선정, 호남대 교양학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청와대, 대통령직인수위, 국회, 정당 공기업 등에서 20년 이상 다양한 국정전반을 경험한 국정전문가의 경력이 인정돼 임용된 김 행정관은 2학기부터 학부생을 상대로 ‘현대정치 이해’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김 행정관은 “국정의 최고 컨트론타워인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국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간접 경험하면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현장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지역대학 학생들에게 교과서 밖 중앙정부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국정의 최고 컨트론타워인 청와대 경력은 물론 당 대표와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6회나 역임한 특이경력으로 입법, 예산 등 국회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전문경력인사 활용 지원사업은 국가기관, 연구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급 이상 공직자등을 지닌 자에 한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희망하는 지역대학에 임용된다.

/김다이지자

동신대 김상권씨 ‘전남경찰청 감사장’



동신대학교 대학본부 사무처 총무팀 소속 김상권(28)씨가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씨는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인재 채용 관리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여파 속에 동신대에서 여섯 차례 치러진 전남지역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과 승진 시험의 업무 지원을 하며, 코로나19 예방에 힘썼다.

김씨는 “앞으로도 동신대와 관·군·경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동원장갑, 구례군 수재민돕기 물품 전달

명진고등학교는 남정연 교장이 지난 17일 구례 화엄사를 방문해 동원장갑의 구례군 수재민을 돕기 위한 물품 전달에 가교역할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원장갑이 기증한 물품은 4천만원 상당의 작업용 장갑 8만 켤레이고, 그 중 6만 켤레는 구례군청에, 2만 켤레는 구례 화엄사에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남 교장을 비롯해 구례군수, 동원장갑 김옥경 대표, 박종석 총괄이사 등이 참석했다.

남 교장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동원장갑 김옥경 대표가 구례군 수재민을 위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이번 전달식이 이뤄졌다.

남 교장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수재민들이 제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를 결정해 주신 동원장갑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본사 손님

▲김영창 광주시도시공사 경영이사 ▲배윤식 / 사업이사 ▲김도형 / 홍보고객팀장

결혼

●이용수(아이메디스 대표이사)·정윤숙씨 아들 결혼, 노환호(창원 우진통신 대표)·이채영씨 딸 혼전=27일(일) 낮 12시 광주 서구 관천동 웨딩그릴 위더스 5층 엘리홀.

안내

●광주시인협회 제2회 환경살리기 학생·시민 백일장 대회=환경요요 고발, 환경 살리기 주제에 대한 온라인 원고 모집 초등(4학년 이상), 중등, 고등 일반 시, 시조, 동시 개인당 1편, 보낼 곳 광주주시인협회 메일, 우편이용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17 (팩스: 062-226-8816), 마감 10월 8일 소인까지 유효, 문의: 062-233-8816.